

『女子界』를 통해 본 신여성 담론과 詩*

구명숙**

1. 머리말
2. 여성교육론과 현모양처론을 강요하는 담론과 詩
 - 2.1. 『여자계』에 드러난 남성들의 담론
 - 2.2. 이광수의 「어머니의 무릎」
3. 여성자각과 개성적인 삶을 주장하는 담론과 詩
 - 3.1. 『여자계』에 드러난 남성과 여성들의 담론
 - 3.2. 나혜석의 「빛(光)」
4. 맺음말

초록

본고는 1917년 발간된 최초의 여성 잡지인 『여자계』를 중심으로 신여성 담론과 시작품을 살펴 본 것이다. 1920년대의 여성 잡지들로는 『여자계』를 비롯하여 『신여자』, 『여자시론』, 『신가정』 등이 발간되었는데 이들 잡지의 공통되는 특징은 주로 여성을 새롭게 교육하기 위한 논단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여성 교육을 주장하는 필진들이 대부분 남성들이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당시 신여성 담론을 이끄는 주체에 해당하는 신여성은 소수에 불과하며,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는 신여성의 수도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여자계』는 다른 여성 잡지들과 비교하여 문학작품이 고루 실려 있는 편인데, 본고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시작품을 텍스트 삼아 신여성 담론과 결부시켜 다루었다.

1917년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를 통해 발간된 『여자계』는 우리 나라의 최초의 여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0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대 교수

성 잡지라는 의의도 있지만, 그 동안 침묵을 강요받았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집약하여 담아낼 수 있었던 중요한 매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남성들이 잡지 발간을 주도하였으며, 남성적 프리즘을 통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배하고 있는 아쉬운 점도 묶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계』의 발간은 여성들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언론을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여성 스스로 인간임을 자각하고, 여성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부분의 남성 필자들은 주로 여성들의 자각을 촉구하고 근대 교육 문제나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철저한 남성 중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여자계』에 드러난 남성들의 담론은 여성 교육과 현모양처론에 집중되었다. 일제 식민 통치 아래 여성의 교육은 식민지 교육의 목표인 조선인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한 황민화, 우민화 교육의 일환으로 변형되었다. 이러한 식민 교육의 특성은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여성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여성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문명 개화를 위해 여성을 계몽시켰던 것이다. 특히 여성 교육의 중요성은 자녀 양육과 훌륭한 2세를 길러 내는 여성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욱 강조되었다. 교육을 통한 현모양처 만들기는 남성들의 확고한 의지였으며 여성을 어머니의 역할과 자녀 양육으로 한정시킨 것이다. 또한 근대적인 모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성교육이 강조되었는데, 여성을 아내와 어머니로 규정하는 현모양처 주의를 1930년대 말로 갈수록 강화되어 현모양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신여성들이 심하게 비판을 받았다. 신여성들도 남성들이 강요하였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다른 억압적 기제에 비해 비교적 수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광수는 끊임없이 여성의 자각과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지만 근대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에는 동조하지 않고, 교육받은 여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쳤다. 『여자계』에 실린 그의 시 『어머니의 무릎』은 그러한 주장을 은유로 표현해 보인 것이다.

『여자계』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들의 공통된 담론들은 자아 각성과 개성적인 삶, 즉 여성도 개성을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자유와 평등사상에 입각한 내용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개성적인 인간 삶의 추구를 위한 교육과는 거리가 먼 현모양처 교육이나 모성 교육에 국한하여 목소리를 높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의 자아 각성을 촉구하고 개성적인 삶을 독려하는 담론들이 『여자계』의 지면을 충실하게 채우고 있다. 즉, 여성의 자아 각성과 개성적인 삶을 주장하는 글들은 남성과 여성이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도 남성 필자들이 대부분의 지면을 차지하지만, 일상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여성들과 일본 유학 시절 일찍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신여성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관에 근거하여 ‘여자도 사람’이라는 자각을

당당히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의 자아 각성과 개성적 삶에 대한 촉구는 남녀가 공통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다름아니라 그 당시 억압받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자각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한 목소리의 제언이기도 하다.

근대적 정신은 인간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와 인간 이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주의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돈에 대한 경제주의도 큰 몫으로 작용한다. 여성들의 담론에는 여성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와 직업과 경제적 자립을 중시하는 경제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제 식민지 정책의 여러 사회적 기제들은 신여성에게 일정한 근대적 여성성을 요구하였다. 근대적 사상은 합리적 개인이라는 인간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인 신여성들은 여성이 우선 하나의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결혼에서의

자유 선택,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에서 일할 권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성 해방이나 여성 자각이라는 신여성 담론은 현실적,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 실상이다. 이는 식민 국가의 법적 제도하에서 여성의 위치는 조선조의 종법 제도하의 여성의 위치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담론의 변화는 곧 그 사회의 변화를 읽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신여성 자신들의 담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혜석은 여성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임을 깨닫고 시대에 항거하며 가부장제에 첫 도전을 감행한 실천적 신여성이었다. 그 모험과 실천의 각오의 일단을 보여주는 시작품이 바로 『여자계』에 실린 「빛」이다.

1. 머리말

신여성은 일본유학을 통해 여성해방사상의 조류를 접하면서 여성주의적 의식을 키운 집단으로 형성되었다. 그 동안 신여성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계속 연구자들의 관심 속에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그 개념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신여성은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을 지칭한다. 그러나 ‘근대적 교육’이란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 그러므로 신여성의 범위도 교육의 정도에 따라 ‘고등여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진 중간층 신여성’

‘문자 해독 정도의 노동 신여성’ ‘해외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각계 각층의 지도적 신여성’ ‘자기 발전은 물론 사회에 대한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실천에 매진하는 여성’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은 편이다.

근자에는 신여성이란 개념 자체보다 신여성을 둘러싸고 형성된 담론의 맥락을 따져 그 유동적 성격에 주목하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신여성’이란 개념이 형성되는 역사화, 맥락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 담론을 생산한 특수한 입장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힘의 세력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여성 담론에 관한 논의들은 당시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밀착되면서 근대성을 효과적으로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여성에 대한 담론화는 1920년대 초부터 신문과 잡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신여성이 하나의 사회적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와 동일하다. 초반에는 ‘신여자’ 또는 ‘모던걸’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지만, 193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현대여성’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¹⁾

본고에서는 신여성의 개념을 ‘고등여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진 중산층의 여성이나 해외 유학을 한 각계 각층의 지도적 신여성’의 범위에 한정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범위로 개념을 한정하는 이유는 1920년대 초에 잡지나 신문에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여성은 적어도 여학교 교육을 받았던 여성이거나 해외 유학을 하였던 지식인 여성들이라는 데 근거를 둔다.

1920년대의 여성 잡지는 『여자계』를 비롯하여 『신여자』, 『여자시론』, 『신가정』 등이 발간되었다. 이들 잡지의 공통되는 특징은 주로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논단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학작품이 많이 실리지 않았는데, 소설에 비해서 시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1) 조은·윤택림, 「일제하 ‘신여성’과 가부장제 - 근대성과 여성성에 대한 식민담론의 재조명」, 『광복 50주년 기념논문집 8-여성』(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1995), p.173.

면에서 더욱 미흡한 수준에 이른다. 필진도 주로 남성인 점으로 미루어 보면 그 당시 신여성 담론을 이끄는 주체에 해당하는 신여성은 소수에 불과하며,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는 신여성의 수도 그리 많지 않은 당대의 사회적 여건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중 『여자계』와 『신여자』에는 문학작품도 비교적 고루 실려 있는 편이며 시와 소설이 여러 편 들어있다. 그러나 『신여자』에 실린 시는 번역시가 대부분이어서 한국의 신여성문학을 살펴보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여자계』를 중심으로 1920년대 초에 나타난 신여성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915년 일본의 여자 유학생들은 ‘在京 조선 여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품성 함양’이라는 취지 아래 東京女子留學生親睦會를 조직했다. 이 모임은 1917년 이후 동경여자유학생의 대표적인 단체로서 성격을 띠기 시작했으며, 1918년 3월에는 회원이 40여 명에 이르는 규모가 되었다. 그러나 겉으로 표방한 것과는 달리 이 모임의 성격은 여자 유학생들의 상호 친목 도모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 단체는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이 처한 특수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문제를 사회문제의 일환으로 제기하기 위한 여성 주체 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²⁾ 그리고 『여자계』는 1917년 바로 그 여자 유학생 친목회를 통해 발간된 잡지이다. 『여자계』는 우리 나라의 최초의 여성 잡지라는 의의도 있지만, 그 동안 침묵을 강요받았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집약하여 담아낼 수 있었던 중요한 매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잡지의 편집진을 살펴보면 편집부장에 김덕성, 편집부원에 허영숙, 황애시덕, 나혜석 등이며 고문으로는 전영택과 이광수가 활동하였다. 편집진 구성만으로 보아도 남성들이 잡지 발간을 주도하였으며, 남성적 프리즘을 통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2) 박정애, 「1910~1920년대 초반 여자유학생 연구」(숙명여대 대학원, 1999.8), p.28 참조.

있다. 『여자계』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성보다는 남성필자들이 더 많으며, 대부분의 남성필자들은 주로 여성들의 자각을 촉구하고 근대 교육문제나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철저한 남성중심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여자 유학생들은 ‘조선여자의 교육보급, 넓은 지식향상’의 설립목적을 내세워 1920년 1월 4일 朝鮮女子留學生學興會를 조직하였다. 이 여자학회는 남자 고문이었던 전영택과 이광수의 간여 없이 온전히 여성의 힘으로 『여자계』 제4호를 발간하였다는 데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경영난에 부딪쳐 1921년 7월 제7호로써 잡지 발간은 중단되고 만다. 비록 총 일곱 권의 책을 내는 데 그쳤지만 최남선이 『여자계』의 발간을 축하하는 글에서 “대개 우리의 아낙네가 입 있는 표를 담대하게 드러낸 효시”³⁾라고 밝혔던 바와 같이 『여자계』의 발간은 여성들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언로를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여성들이 여성 스스로 인간임을 자각하고, 여성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 여성교육론과 현모양처론을 강요하는 담론과 詩

2.1. 『여자계』에 드러난 남성들의 담론

주지하다시피, 개화기 여성 교육의 효시는 1886년에 시작한 기독교 여성교육이었다. 개화파 인사와 지식인 여성들, 기독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여성계에도 근대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 이전에 시작된 근대 교육은 어느 정도 자유·평등에 대한 근대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 이후 여성교육정책

3) 崔南善, 「女子界」, 『青春』 제10호(1917), p.11.

은 여성의 '주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우회하는 여성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1911년 조선 교육령에 의하면 여성교육 목적은 부녀자의 덕목을 길러 정숙하고 근검한 여자로 양성하는 데 있다. 교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과, 가사, 수예, 재봉 등이 주류를 이루어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여성의 주체적 의식 각성과는 무관한 것들이었다.⁴⁾ 여성의 정규교육은 '순량한 황성 신민'을 양성하는 것과 봉건적 가부장제에 입각한 현모양처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비정규교육의 경우 주로 문맹 퇴치와 생활 계몽이 주를 이루었으며 일제 강점기 후반에는 정규와 비정규 모두 식민지 지배교육으로 통합되었다. 일제 식민통치 아래 여성의 교육은 식민지교육의 목표인 조선인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한 황민화, 우민화 교육의 일환으로 변형되었다.

이러한 식민교육의 특성은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여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여성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문명개화를 위해 여성을 계몽시켰던 것이다.⁵⁾ 특히 여성교육의 중요성은 자녀 양육과 훌륭한 2세를 길러내는 여성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욱 강조되었다.

근대적인 여성교육이 시작되면서 종래의 현모양처의 개념이 변화하였다. 양처는 '좋은 남편의 좋은 상대자'를 의미하여, 내조를 잘하는 아내라면 또는 내조를 잘 할 수 있는 식견이 있는 여성이라면 자녀의 교육도 합리적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다⁶⁾는 논지이다. 이는 일본의 '양처현모주의'가 도입되면서 일부일처제에 근거한 근대적 가족에서 여성의 위치를 아내의 역할과 내조,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과 자녀양육으로 확고히 고정된 것이다. 일본의 '양처현모주의'가 조선에 와서 '현모양처주의'로 바뀐 것은 아내의 역할보다는 어머니 역할을 더욱 강조했기 때문이다. 근대적인

4) 조은·윤택립, 앞의 글, p.168.

5) 박사지, 「부인교육문제로 동의 하야」, 『개벽』(1921.3), pp.36~38.

6) 한국여성연구회, 『한국근대여성사(근대편)』(여성사 분과 편), pp.50~60 참조.

모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성교육이 강조되었는데, 여성을 아내와 어머니로 규정하는 현모양처주의는 1930년대 말로 갈수록 강화되어 현모양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신여성들이 심하게 비판을 받았다. 신여성들도 남성들이 강요하였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다른 억압적 기제에 비해 비교적 수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 나라 가정은 예로부터 지나 가정제도를 본보기로 하여 男尊女卑의 별이 엄격하여 이것을 쫓아 남자는 인권과 자유가 있으나 여자는 이 선천적으로 가진 사람된 요소를 잃어버리고 남자에게 정복한 바 되야 이때까지 노예의 생활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는 남녀 공동한 소유가 아니요, 남자의 단독한 소유물이었고 국가에 대한 의무책임은 여자에게 조금도 상관 없었으며 심지어 가정에 권리조차 남자에게 빼앗기고 여자는 한갓 부속물에 불과하여 종의 사역을 할 본무로 알아온 결과…… 여자는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미련하고 무식하게 되어 영원히 천성을 잃고 인권을 회복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⁷⁾

朝鮮에 아직 여자교육이 없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 되려니와 있다고 할지라도 其 情神과 方法에 이르러서는 實로 말할나위 없습니다... 女子도 男子와 같이 人性을 具備하였고, 天稟의 能力이 있으나, 나서부터 完全치 못하니 完全한 사람을 만들기 爲하여 女子를 만들것이외다. 이에 먼저 사람을 만들라함은, 世上에 아무리 所用없는 그냥 사람을 養成하라는 것이 아니라 無意味하고 徹底치 못한 所謂 賢母良妻라는 器械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獨立한 一箇 사람이 되도록 人格을 養成하여 주고, 그 다음에 一家를 위하여 社會를 위하여 或은 民族을 위하여 人道를 위하여 有用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 함이외다.⁸⁾

위의 글은 철저히 남성 중심인 사회에서 여성은 사람으로 구실을 하지 못한 채 남자의 노예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국가에 대한 의무 책임에도 상관없고, 인권도 없이 살아온 존재로 파악

7) 김남, 「신구충돌의 비극」, 『女子界』 제2호(1918), pp.26~27.

8) 「여자교육론」, 『여자계』 제3호(1919), pp.8~10.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족 안에서 왕과 노예의 관계와 같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가정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여자가 할 일이라고 전제한다. 더 나아가 남편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가정제도를 개혁하여 가정의 주인이 되라고 여성의 적극적인 주체의식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다.⁹⁾

그러나 남성들이 강조하는 여성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성의 지향이나 여성 개인 주체의 실현이라는 근대적 의식의 표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국, 내지는 구국을 위한 전국민의 근대화의 필요성에 의한 일환으로 강조된 것이다.

늦어도 이제부터는 가정 안의 권세는 그 부인이 잡어가지고 있어야 할 지니라. 대개 가정의 일은 가정에 있는 부인이 알 것이니 만일 항상 밖에 나가 있는 남자가 상관하게 되면 그 가운데 통일이 없어서 필경은 원만하게 다스려 가지 못할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남자가 가정의 일까지 간섭하며 주관하여야 되게되면 남자의 사업상 방해를 받음이 많을 것이니라. 실상 가정은 부인의 유일의 영토이니 가정의 통치권은 부인의 것이다. 사람의 권리를 갖는 것처럼 약이 없고 권리를 갖기는 것만큼 분한 일이 없으며 그 가운데는 불평과 쟁투가 일어나는 것이니라.¹⁰⁾

위의 글은 남자는 가정의 일로 자신의 '일'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기본적 발상에서 출발하여 여성에게 가정을 맡기는 관용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가정 밖은 당연히 남자의 세계임을 은연중 드러내고 있으며, 여자의 영토인 가정까지 상관하여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면 가정에 평화가 깨진다는 논지를 읽을 수 있다. 남성들이 스스로 가부장적 가정제도를 개혁하여 여성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주장 속에는 여성에게 가정살림을 일임하고 오로지 가치 있는 '일'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 그래야만 변화하는 근대사회에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경쟁

9) 秋湖, 「가정제도를 개혁하라」, 『여자계』 제2호(1918), pp.8~14 참조.

10) 위의 글, p.10.

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에 대한 의무란 다름 아닌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신지식을 가지고 현모양처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일 뿐이다. 여성 교육의 실체는 남자와 대등하게 자유인을 양성하기 위한 여성교육이 아니라 여성교육이란 표면적인 수혜(授惠)를 가장하여 ‘보다 더 공손한(보다 더 교양 있는) 노예’로 만들려는 교묘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경제나 개성적 인간성의 추구를 위한 교육과는 거리가 먼 현모양처교육이나 모성교육에 국한한 것이다. 모성에 대한 끊임없는 강조는 모성보호를 위해 여성을 직장에서 다시 가정으로 보내야 한다는 모성담론을 형성하여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여성 해방에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없었으며, 여성 자신들도 경제적 중요성에 눈뜨지 못했다.¹¹⁾ 당시 여자유학생들은 현모양처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남성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외침은 사회전체의 현모양처 담론에 휩쓸려 무시당했고 여성의 사회진출은 여전히 용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모양처교육의 강화는 결국 “신여성들의 몰락을 가져오게” 한¹²⁾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

2.2. 이광수의 「어머니의 무릎」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자계』에는 詩가 많이 실리지 않았으며, 게재된 시도 의식이 분명히 드러나거나 여성문제와 관련된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여자계』 제3호에 실린 이광수의 「어머니의 무릎」¹³⁾이

11) 조은·윤택립, 앞의 글, p.172 참조.

12)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생각의 나무, 2000), pp.173~174.

13) 이 작품은 『여자계』 제2호에 전반부가 실리고 제 3호에 전문이 재수록되었다. (“이 시의 상반부는 전호에 실렸던 것임을, 하반부는 편집자의 실수로 빠뜨리고 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자와 독자에게 사죄를(아울러 작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독자에게 걸작을 위우는 맛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합하여

란 시를 텍스트 삼아 남성들의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광수의 「어머니의 무릎」은 작자에게 경의를 표할 만큼 걸작으로 언급되¹⁴⁾었고, 아들이 멀리서 어머니를 회상하며 그리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남성적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문명은 ‘여자도 사람이다’는 진리를 가르쳤고 ‘남자와 여자는 균형하게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책임을 진다’하는 진리를 가르쳤고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여 ‘그럼으로 남자와 여자의 교육은 평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가르쳤소. 妻가 되고 母가 되는 것이 毋論 여자의 天職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天職이지 여자의 전체는 아니겠지요. 그러면 그 주체는 무엇이요? ‘사람’이외다. 여자는 妻나 母가 되기 위하여 사람이 된 것은 아니겠지요. 사람이 되었으니 妻나 母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리라.¹⁵⁾

위의 글에서 보듯이, 이광수는 문명의 혜택으로 ‘여자도 사람’이라는 진리를 알게 되었고 남녀가 고르게 사회발전에 책임을 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의 교육이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의 천직은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니, 사람이 된 후에 그 천직의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광수는 여성의 역할을 현모양처의 규범 하에 두고 여성교육론을 펼쳤던 남성 담론을 주도한 사람이었다. 현모양처는 이광수가 바라는 신여성상 그 자체이다. 그는 끊임없이 여성의 자각과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지만 근대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에는 동조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쳤다. 그의 시 「어머니의 무릎」에서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음을 감지 할 수 있다.

어머니!

다시 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여자계』 제3호, p.11)

14) 『여자계』 제2호, p.11.

15) 이광수, 「婚姻에 對한 管見」, 『학지광』 제12호(1917), p.32.

당신의 무릎은 부드러움테다
봄철 뿔기슴의 잔디보다도
여름 하늘에 뜨는 구름보다
羊의 털보다도 비단 房席보다도
어머니!

그 부드러운 무릎에 제가 앉았었지요!
(…중략…)

어머니!
당신의 품속에는 歲月이 없었습니다
젓꼭지에 척 매어 달려서 척 눈을 감으면
밤도 낮이요, 낮도 밤이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를 버둥버둥하면서
중얼중얼 저도 모르는 소리를 지껄일 때에
그것을, 밤이라겠어요. 낮이라겠어요?
땅에야 눈이 덮이거나 말거나
얼음이 열고 찬바람이 불거나
당신의 가슴에 꼭 파묻혀서
젓꼭지를 쥐물럭쥐물럭할 때에
그것을, 겨울이라겠어요, 여름이라겠어요?

어머니!
당신의 무릎은 제 놀이터였어요.
(…중략…)
당신의 무릎은 제 학교였어요.

—「어머니의 무릎」 부분

이 작품은 여성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작품 속에 숨겨진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작가가 그리고 있는 여성(어머니)은 육아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어머니가 하는 일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단순히 아이를 양육하는 수준이 아니고 언문, 한문을 가르치며 교육까지 담당하는 완벽한 어머니이다. 즉 작가(이광수) 정도의 인물을 길러 놓은 숭고한 어머니를 상상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여성들이 그러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모성성을 드러내어 여성들을 현모양처로 변화시켜 가정에 앓혀 두려는 작가의 기본적인 의도를 뒷받침하는 작품으로 보인다.

이 작품에서 어머니의 젖가슴과 무릎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독이고 품어주는 포용력을 상징한다. 어머니의 무릎을 “봄철 뿔가슴의 잔디보다도/여름 하늘에 뜨는 구름보다도/羊의 털보다도 비단 房席보다도”부드러운 “놀이터” 이고 “학교”로 묘사하고 있다. 노예처럼 엎드려 일하는 어머니의 무릎의 이면을 보지 못하고, 어렸을 적 앓아 놀던 부드럽고 편안한 무릎만을 그리워한다. 그것이 남성이 찬양하는 어머니이고 미화된 여성, 즉 모성성을 강조한 여성의 전모이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어머니로서의 삶이 최상인 것처럼 그려진 현모양처주의에 입각해 있음을 보여준다. 어머니도 인격이 있고, 자신의 삶이 있어야 함을 간과하고, 고통과 희생으로 점철된 어머니를 희생적, 헌신적인 聖女같은 존재로만 부각시키고 있다.

시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자애롭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가득 차 그 자체만으로는 감동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감동적 분위기의 원천은 자식을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빈틈없이 가정을 꾸려 가는 양모에 있는 것이다. 여성은 가정을 수호하는 천사라는 미명아래 가정의 청지기이며 온 가족을 위한 일꾼에 불과하다. 여성의 행복은 바로 가정을 지키는 데 있다는 논지를 통하여 여자들에게 아이를 돌보는 일, 가사를 맡아해야 하는 의무를 내면화하라고 강요할 뿐이다. 『여자계』에서 여성의 자각을 크게 외치는 남성들의 논단이 대부분을 이루면서도 어머니로서의 여성 자신의 삶에 대한 깨우침을 논하는 글은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는 현모양처교육론에 압도된 남성들이 어머니의 삶이란 인간의 자율적이고 개성적인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별도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은 오로지 여성만의 의무라는 의식을 내면화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여성들이 현모양처교육론에 수동적이나마 수용하는 양상도 이러한 맥락에 닿아 있다.

3. 여성자각과 개성적인 삶을 주장하는 담론과 詩

3.1. 『여자계』에 드러난 남성과 여성들의 담론

『여자계』에는 여성의 자아각성과 개성적인 삶을 주장하는 글들이 여러 편 게재되어 있다. 남성 필자들이 대부분을 이루지만 일상 생활에서 스스로 깨달은 생각과 각성을 다른 여성들에게 소개하는 여성들의 글이 있어서 시선을 끈다. 일본 유학시절 일찍이 서구문물을 받아들인 신여성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관에 기반하여 ‘여자도 사람’이라는 자각을 당당히 표현한다.

『여자계』 제2호에 秋湖의 “각성하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려 있다. 이 글은 강한 어조로 여자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여자들의 무자각적인 태도와 사치하고 의식 없는 생활을 꼬집어 비판하고 있다.

아아 조선 천지에 여자들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 있거든 깨어야 할 것이요 움직여야 할 것이요 자라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겨울은 이미 지나가고 봄 돌아왔소이다. 잘 때도 이제 다 지나고 깰 때가 되었소이다. 우리는 너무 오래 정지하였고 너무 많이 휴식하였습니다. 아아 우리는 어서 깨서 생명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할 일 많은 우리 사회에서 남자와 힘을 아울러 몸을 받쳐 활동하여야 되겠습니다. (…중략…) 눈 떠서부터 잠들 때까지 모양별 생각만 하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 경영만 하니 어찌 하잔 말인가. 실상 우리 처지에는 여러분의 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과합니다. 잘 살려고 하지를 말고 바로 살기를 힘쓰시오. 안경 끼고 구즈 신고 피아노 치고 그림 그리고 차 타고 배타는 것이 문명이 아니오 그것이 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¹⁶⁾

추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고생하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이 조선 사람이며 그 중에서도 더욱 고생하고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은 조선 여자라는 논리를 편다. 따라서 『여자계』가 앞장서서 당대 조선 여자들의 참상을 똑바로 보고 그들을 구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조선 여자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첫째 교육, 둘째 사회개량, 셋째 사회구제라고 제시한다. 특히 “사회 사업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적당한 여성의 천직”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남성들이 현모양처론과 모성론을 펼친 데 비해 여자의 직업문제, 생활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 다른 남성들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여성교육의 목적은, 남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한 현모양처를 길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가르치고 직업의 길을 열어주어 여성들의 생활을 보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독립을 도와주는 데 있다고 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성론을 펼친다. 여성들은 잠들지 말고 늘 깨어있어야 하며 진실하여야 하고 또한 근면하여 힘을 합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여성들 스스로 각성해야 하고, 불쌍하고 몽매한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성실히 일하라는 것이다.

근대적 정신은 인간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와 인간 이성에 기반한 합리주의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돈에 대한 경제주의도 큰 몫으로 작용한다. 여성들의 담론에는 여성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와 직업과 경제적 자립을 중시하는 경제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남성들의 여자교육론에서 빠져 있는 개인주의와 경제주의는 여성들의 주체적인 여성교육론에서 전면으로 내세우는 조항이다.

男尊女卑 사상이 엄존한 종래의 가족제도 아래서 여성은 “사람된 요소를 잃어버린” 존재로서 남성에게 정복되어 국가에 대한 의무 책임은 조금도 상관 없었으며 가정에 권리조차 남자에게 빼앗기고 여자는 한갓 부속물에 불과하여 종의 사역을 할 본무로 알아왔다. (…중략…) 諸姉!아모를 배호기 전에 맨먼저

16) 『여자계』 제2호(1918), p.3.

켈리여사-여사의 정신을 배호고 아모도 본받지 못할지라도 오죽 켈리여사의 생애-그 노력만 본바드면 금일 조선의 여자-참으로 자각과 자임있는 여자노릇하기에 아모 부족함이 업슬가 하노라. 우리의 諸姉에 대한 요구가 그다지 과중치 안도다. 다만 켈리여사 보담 눈과 귀와 입의 자유를 더 가진 갑시 잇슬만큼 自身上 수양과 사회적 공헌이 잇스면 쌍수를 드리 諸姉의 송축을 마지 아니하리로다.¹⁷⁾

인용된 위의 글에서 보듯이, 최남선은 『여자계』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공상에 빠지지 말고 남의 집 장맛 걱정하지 말고 今日朝鮮의 여자문제를 정면으로 또 착실히 연구하시라”는 주문과 함께 엘렌 켈리 여사의 정신을 배우라고 요구한다. 그리하면 “참으로 자각과 자임 있는 여자노릇하기에 아모 부족함이 없다”고 설파한다. 자각과 자임 있는 여자란 곧 각성된 여성으로서 개성을 존중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여성들이 사람된 요소를 잃어버리고 종의 사역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남존여비 사상이 엄존한 가족제도에 있다고 보는 최남선의 시각은 그 당시로서는 가히 획기적이라 할 만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고한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이에 대항하려면 남자와 똑같이 사람답게 살기를 각오하고 그 방법을 찾아 고질화된 가부장제 사회에 도전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여성의 자각에 바탕을 둔 주체의식의 확립이다.

일제 식민지 정책의 여러 사회적 기제들은 신여성에게 일정한 근대적 여성성을 요구하였다. 근대적 사상은 합리적 개인이라는 인간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인 신여성들은 여성이 우선 하나의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결혼에서의 자유 선택,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에서 일할 권리를 요구하였다.

17) 최남선, 앞의 글, p.12.

자유가 무엇이니 이상이 어떠니 하여 이제부터는 여자도 대우를 받아야 할 줄 아는 사람도 간혹 있게 되었습니다. (…중략…) 지금부터 우리는 완전히 각성하여 지식도 수양하고 이상도 진흥시키고 의지도 확립하여 우리 퇴폐한 여자계를 다시 건설한 후에 우리 권위도 발현하고 우리 本位도 찾아야겠습니다. (…중략…)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다운 이상이 있어야겠소이다. (…중략…) 개인의 安逸만 요구하면 우리집 좌우에서 들리는 우리 동류 여자들의 오장이 스러지는 듯한 울음 소리와 한숨소리를 어찌 편히 듣고 있겠습니까. 누가 저들을 천신만고를 불원하고 흑암동중에서 구출할까요.¹⁸⁾

그러나 여성해방이나 여성 자각이라는 신여성 담론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 실상이다. 식민국가가 규정한 법적 제도하에서 여성의 위치는 조선조의 종법 제도하의 여성의 위치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은 이를 입증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담론의 변화는 곧 그 사회의 변화를 읽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신여성 자신들의 담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2. 나혜석의 「빛(光)」

『여자계』 제2호(1918.3)에는 나혜석의 소설 「경희」가 그의 호인 晶月로 밝혀져 실려 있다. 나혜석의 작품으로 간주되는¹⁹⁾ 시 「빛」은 H.S. 生이라는 필명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H와 S는 혜석의 이니셜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 필자가 많지 않은 터에 나혜석의 작품을 여러 편 실게 되니 晶月과 HS라는 필명으로 다르게 실은 것이 아닌가 한다. 시의 제목은 목차에서는 「빛」으로 표기되어 있고 본문에는 「光」

18) 박순애, 「대문을 나선 兄弟들에게」, 『여자계』 제2호(1918), pp.24~25.

19) 이상경, 『나혜석 전집』(태학사, 2000), p.105.('H.S.生'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되었는데 『여자계』 제2호에 관여한 인물 중 이러한 필명을 사용할 만한 인물로는 나혜석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혜석의 작품으로 간주해서 여기에 실는다.)

으로 실려 있다.

나혜석은 1917년 3월 『학지광』에 「雜感-K언니에게 與함」이라는 글을 통해 이미 그의 여권론을 피력한 바 있다. ‘여자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자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요지이다. 그는 조선여성의 선각자는 너무 설친다는 욕을 두려워하거나 여자답게 안존하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여성이 해야 할 사업을 못해서는 안되며, 여성도 사람이 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탐험하는 자가 없으면 그 길은 영원히 못 갈 것이요,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 자손들을 무엇을 주어 살리잔 말이오?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를 무엇으로 꾸미잔 말이오?”²⁰⁾라고 하면서 여성도 사람이라는 자각을 하며 그 자각을 실천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느낀다. 그러한 나혜석의 선각자적 사상이 담겨 있는 시가 바로 「빛」이라고 본다.

그는 벌써 와서 내 옆에 앉았었으나 나는 눈을 뜨지 못하였다.
아아! 어찌면 그렇게 잠이 깊이 들었었는지

그가 왔을 때에는 나는 숙수(熟睡)중이었다.
그는 좋은 음악을 내 머리맡에서 불렀었으나 나는 조금도 몰랐었다.
이렇게 귀중한 밤을 수없이 그냥 보내었구나

아아 왜 진시(趁時) 그를 보지 못하였는가
아아 빛아! 빛아! 情火를 키어라.
언제까지든지 내 옆에 있어다오
아아 빛아! 빛아! 摩擦을 시켜라
아무 것도 모르고 자는 나를 깨운 이상에는
내게서 불이 일어나도록 뜨겁게 만들어라.
이것이 깨워준 너의 사명이오.

20) 晶月(나혜석), 「잡감-K언니에게 與함」, 『學之光』(1917).

개인 나의 職分이다.

아! 빛아! 내 옆에 있는 빛아!

—「빛」 전문

위의 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나를 일깨워준 빛을 뒤늦게 깨닫고, 점화되어 뜨겁게 일어나고자 하는 자각의 사명감을 노래하고 있다. '빛'은 새로운 광명의 세상과 새 삶을 의미한다. 부연하면, 진작에 내 옆에 와 있는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어둠 속에서 깨어나지 못한 여성의 삶을 말하며 자아의 각성을 기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 자신의 직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여자계』 발간 이후 1920, 1930년대 잡지들에는 19세기 후반 서구문명의 급속한 발달을 설명해 주는 진화론과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여성해방론 및 사회주의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입센의 「인형의 집」과 엘렌 케이의 모성론이다. 입센의 「인형의 집」에서 노라는 여성이 남자의 아내, 자녀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이 자아의 각성과 자아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근대인이 되어야 함을 알렸다. 엘렌 케이는 자유연애와 남녀동등권과 성적 자유의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신도덕을 주창했다.

입센의 「인형의 집」이 기존의 결혼제도에 대하여 여성의 개인의식을 일깨워 주었다면, 엘렌 케이는 연애, 결혼, 이혼에 있어서 자유를 신성시하여, 기존의 결혼제도의 해체를 요구했다. 그의 자유연애, 결혼, 이혼은 종래의 성도덕을 배척하는 것으로서 정조에 있어서도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등 남녀에 대해 차별적인 성윤리를 적용하는 이중규범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의 내용은 성의 해방, 자유연애, 경제적 독립이었다. 이 여권론은 소위 제1세대 신여성으로 불리는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은 그러한 사상을 용기 있게 실천

해 나아가다가 꺾이고 쓰러진 희생자들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나혜석은 여성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임을 깨닫고 시대에 항거하며 가부장제에 첫 도전을 감행한 실천적 신여성이었다. 그 모험과 실천의 각오의 일단을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빛」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1917년 간행된 여성잡지인 『여자계』를 통하여 1910년대말 1920년대 초의 신여성 담론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여자계』를 1차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여성들이 만든 최초의 여성지라는 데 의의를 두었으며, 1921년 『신여자』가 발간되기 전까지 신여성들의 주요한 활동 매체였기 때문이다. 신여성의 담론이 발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에 관한 남성들의 논고와 여성 스스로의 논고들을 종합 분석한 후 시작품들을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자계』에 표상된 신여성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여성들의 자아각성을 독려하는 남성들의 주장과 여성스스로의 자아각성 의식의 표출에 따른 신여성 담론의 발화가 확산되어 갔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전통적 사회규범을 일탈하거나 가부장제 사회에 도전하여 개성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여자계』에 실린 시 작품들 중 남성 작가와 여성작가를 각각 선정하여 분석해 본 결과 남성 작가 이광수의 작품인 「어머니의 무릎」은 당시의 식민교육정책에 의해 주창된 현모양처론의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여성 작가 나혜석의 작품인 「빛」은 여성의 자아각성을 토대로 여권론을 실천하려는 각오와 인간답게 살겠다는 작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각 『여자계』에 나타난 여성의 논단과 남성의 논단에 부합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 1920~1930년대의 여성잡지들을 총체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신 여성문학에 미친 매체의 영향 및 그 역할을 규명해 내는 동시에, 잡지 등 매체에 드러난 신여성들의 다양한 양상이 다각도로 체계화되는 작업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女子界』 제1-7호

『학지광』 제12호, 1917.

고영복,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아세아여성연구』 제10집,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1971.

권희영, 「1920~1930년대 ‘신여성’과 모더니티의 문제」, 『사회와 역사』 제54집, 한국사학회사학회, 1998.

김경일, 「일제하의 신여성 연구」, 『사회와 역사』 제57집, 문학과지성사, 2000.

박사직, 「부인교육문제로 도의 하야」, 『개벽』, 1921.3.

박정애, 「1910-1920년대초반 여자유학생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1999.8.

이광수, 「婚姻에 對한 管見」, 『학지광』 제12호, 1917.

『이광수전집』 제15권, 삼중당, 1963.

이상경,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晶月(나혜석), 「잡감-K언니에게 與함」, 『학지광』, 1917.

정요섭, 「한국여성의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 일제하 민족 운동사, 『아세아여성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1971.

조은·윤택림, 「일제하 ‘신여성’과 가부장제-근대성과 여성성에 대한 식민담론의 재조명」, 『광복 50주년 기념논문집 8-여성』,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1995.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위해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한국여성연구회, 『한국근대여성사(근대편)』, 여성사 분과 편.

Abstract

Women's Discourse and Poems of New Women in the *Women's World*

Koo, Myong-Sook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ruction of women's discourse from later part of the 1910s to early 1920s presented in the *Women's World*, a women's magazine first published in 1917. The reasons why this paper examines the *Women's World* as the primary source are because this magazine was the first women's magazine published by women and because it was the major discourse channel for new women until *the New Women* was published in 1921. This paper focuses on the discussions about the beginning stage of the discourse of new women by both men and women and then analyzes some poems published around that period. The discourse of new women published in the *Women's World* has two distinctive aspects.

First, men's encouragement for women's self-awareness and self-awareness of women reflected in new women's discourse were spreading at that time. It was about this time when the so-called new women formed the basis for the advancement of the individual self which challenged the norms of traditional and patriarchal society.

Second, analyzing the selected poems by both men and women authors published in the *Women's World*, the writer finds that the male author Lee, Kwang-Soo's *Mother's Knees* confirms the "wise-mother-good-wife" ideal for women which was taught by colonial education, while the woman writer Na, He-Seok's *Light* symbolically expresses the author's will to

achieve women's right by realizing her own self-awareness and to live a life of dignified human being. This result confirms the findings of the men and women's discourses published in the *Women's World*.

A collective study of women's magazines published during the 1920s and 30s in order to explore their roles and influence on literature of new women and a systematic work of various situations of new women reflected in magazines and other media are left to be done.

